



비대면 시대, 직접 해보고 깨달은 온라인 회의/워크숍/트레이닝 진행의 기술



전쟁없는세상 지음

소책자를 발간하며

작년 한 해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들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사회운동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팬데믹이라고 사회부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사회부정을 드러냈던 방식(거리시위)이 불가능해지거나 쉽지 않게 되고 거의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대체해야만 했던 것이죠. 전쟁없는세상도 작년 총회를 처음 온라인 플랫폼 줌(ZOOM)으로 개최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처음으로 해보는 온라인 총회라 다들 어찌나 떨었던지... 대면으로 모이지 말자고 온라인으로 개최했던 건데 처음이라 혹시 몰라서 사무실에 운영 위원들이 전부 모여 띄엄띄엄 이어폰을 끼고 앉아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던 기억,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행사를 온라인 토크쇼로 대체하며 생방송이라 말실수 할까봐 떨고 재미를 부여하고자 녹화방송과 병행했는데 여러 기술적인 문제로 실수할까봐 불안해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발견되었어요. 온라인으로 회의나 워크숍, 트레이닝을 진행하면 거리가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고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절약이 됩니다. 특히 서울 이외의 지역 활동가들이 덜 소외되게 되지요. 여행을 하지 않으니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이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 2020 평화캠프에는 저 멀리 미국의 활동가가 오셔서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이 아니면 애초에 생각조차하기 어려웠을 초청자였을 거예요. 이뿐인가요? 데모 방식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0 온라인 퀴어퍼레이드 다들 참여하셨죠? 아마도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그런 귀여운 상상력이 가득한 퀴퍼를 만나기 어려

왔을 지도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 전쟁없는세상 내부에서 이 소책자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여름에 비폭력 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에서 온라인 퍼실리테이팅과 관련한 내부 워크숍을 한 차례 진행한 이후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사회운동 방식에서도 이제는 일정 정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전쟁없는세상의 비폭력 프로그램의 활동 목표와 취지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감량이 되지 못해 막상 아이디어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 그냥 실력이 되는 만큼 정리하자, 스피드가 생명이다 이런 심정으로다가 소책자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온라인 진행에서 주의할 점 11가지로 <망치> 트레이너들이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회의, 워크숍, 트레이닝을 진행해보며 느꼈던 주의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목록입니다. 전쟁없는세상 구글 드라이브에서 직접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는 연습활동이나 게임들도 있고요 페들릿이나 멘티미터, OBS와 같은 무료 소프트웨어들 소개도 있고 이밖에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진행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알고 있고 해보니까 유용했던 모든 목록이 담겨 있어요.

모쪼록 이 소책자가 너무 늦은 기획이지 않기를, 널리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우울한 시기에도 지치지 말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사회 운동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3월 어느 날
전쟁없는세상을 대신하여, 오리

목차

서문: 소책자를 발간하며	2
온라인 진행에서 주의할 점	11가지 5
현실적인 목표 잡기	
가능한 참여적으로 기획하기	
참여자들의 감정 상태 살피기	
자주 쉬기	
기술 지원 담당 따로 두기	
완벽하려고 하지 말기	
참여자들의 접속 환경 고려하기	
멀티테스킹이나 온라인 툴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기	
소리 간섭에 주의하기	
기술적 투자 고려하기	
반드시 시연해 보기	
활용할 수 있는 도구	13
몸풀기, 스트레칭: 카메라 활용	
온라인 자기소개	
온라인 동심원	
패들릿	
멘티미터	
온라인 스펙트럼	
아날로그: 종이와 펜으로 쓰거나 그리기	
소그룹/짝지어 말하기	
온라인 징검다리게임	
온라인 연대의 스펙트럼	
나와 조직의 건강한 거리 묻기	
온라인 칠판	
OBS	
개더 타운	
이밖에: 채팅창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온라인 플랫폼 소개	29
전쟁없는세상, 망치 소개	30



온라인 진행에서 주의할 점 11가지

현실적인 목표 잡기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옮겨도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효율적인 회의/워크숍/트레이닝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모임들은 몇 가지 기술에만 적응이 된다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단체의 구체적 사업에 관한 회의 혹은 어떤 활동을 기획한다든지 하는 과업과 관련한 회의/워크숍/트레이닝의 경우는 온라인 환경이 그 모임의 분위기나 생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게다가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라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온라인 진행이 더 유리하지요. 하지만 모임의 주제에 따라 온라인으로 옮길 때 효과가 크게 반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민감해질 수 있는 주제들, 예를 들어 조직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나,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문제 등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모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방에서 혼자인 경우일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의 경우는 아주 급하지 않은 이상 오프라인 모임이 가능해 질 때까지 좀 미뤄두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또 온라인은 오프라인과 달라서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피곤이 쉬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논의가 길어질 수 있는 모임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결과의 목표치를 낮춰 잡거나 논의 내용을 쪼개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한 참여적으로 기획하기



기계를 통해 회의/워크숍/트레이닝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10분 이상을 집중하기가 힘들고 자주 딴 생각이 나요. 프리젠테이션 시간이 15분이 넘어가면 하품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행사의 목적에 따라 강의 위주의 행사가 있을 수 있지만 강의 위주의 행사라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던진다면 전쟁없는세상이 트레이닝에서 자주 쓰는 소그룹 활동, 게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소책자에도 소개된 패들릿이나 멘티미터를 이용해 투표를 하거나 각자 메모를 붙이도록 하는 것도 좋지요. 이것은 참여자들의 줄음을 쫓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배우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온라인 회의/워크숍/트레이닝으로 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참여자들의 감정 상태 살피기

지난 1년 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집콕, 방콕 하는 시간들이 하염 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두 번은 재미있었지만 온라인 모임이나 행사가 계속되니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진절머리가 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이나 행사보다 더 세심하게 참여자들의 감정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프라인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안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체크인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쉬기

온라인 모임에서는 특성상 움직임이 거의 없고 사람들과 과도하게 근접해서 시선을 마주해야하기 때문에 쉬 피로해집니다. 1시간이나 1시간 반 간격으로 무조건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쉬는 시간 후에는 활용할 수 있는 도구 1번에서 소개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몸 풀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 지원 담당 따로 두기



오프라인 회의/워크숍/트레이닝과 다르게 온라인 모임을 매끄럽게, 참여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모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술 지원 담당을 따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기술 지원 담당이 하는 일은 물론 회의/워크숍/트레이닝을 어떻게 디자인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참여자들을 회의실에 입장시키는 일부터 패널들의 발표 자료를 화면 공유하고 소그룹방을 만들고 참여자들 배치하기, (필요하다면) 서기 역할까지 매우 다양하고 핵심적인 일들을 해요. 기술 지원이 따로 있으면 참여자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직접 담당자에게 DM을 보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요.

따라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온라인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좋지만 그 기술들이 아주 어려운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익힐 수 있는 의지와 시간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또 기술 지원을 담당하시는 분의 경우 대부분 전체 논의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모임의 경우 의사결정에서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은 기술 지원을 맡지 말아야 하고 모임에 참여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참여할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맡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죠.

완벽하려고 하지 말기

기술은 영문도 모르게 문제가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랩톱을 열었는데 업데이트 중일 수도 있고 갑자기 버퍼링이 심하거나 화면이 멈추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지역, 여러 국가에서 모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자주, 더 심하게 발견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당황할 수도 있고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제 모임을 진행하기 전 시연을 해보는 것, 온라인 툴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여자들의 접속 환경 고려하기

참여자들은 다양한 기기로, 다양한 장소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획한 행사가 특정 기기로, 특정 환경에서 접속해야만 효과적이라면 (예를 들어, 테블릿이나 폰보다는 PC로 접속해야 한다든가, 소그룹토론이 진행된다든가) 이를 미리 참여자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테스킹이나 온라인 툴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기

온라인 모임에 효율적인 툴들이 벌써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이 소책자에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잘만 사용하면 주의가 흐트러지기 쉬운 온라인 모임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만 경험상 그 반대의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가 많은 모임의 경우 특히 그렇게 되기가 쉽고 참여자들의 연령대나 얼마나 온라인 툴에 익숙한지, 접속 환경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오히려 비효율적인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툴들을 한꺼번에 사용하려 하지 마시고 1개 혹은 2개 정도를 최대로 사용한다 생각하고 모임을 기획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리 간섭에 주의하기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 혹은 기술 지원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행사를 진행하면 실질적인 지원이나 안도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소리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은 팬데믹 시대 1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에 익숙해져서 예전처럼 불안에 떨면서 모여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부득이하게 같은 공간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꼭 이어폰을 사용하시고 넓은 공간에서 2미터 이상 떨어져 접속을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기술적 투자 고려하기

온라인으로 회의/워크숍/트레이닝을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먼저 듀얼 모니터인데요, 만약 세컨 모니터나 포터블 모니터를 구입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이 투자가 비용 대비 엄청난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쪽 모니터에는 ppt를 띄워놓고 다른 모니터에서는 참여자들 전체의 얼굴을 보면서 모임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만약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신다면 회의 중에 누가 손을 드는지 등을 한 번에 체크하실 수 있죠. 이 외에도 펜슬로 필기를 할 수 있는 테블릿이나 패드가 있다면 진행 스타일에 따라서 매우 유용한 기술적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연해 보기

진행자(들), 보조진행자(들), 기술지원(들) 및 기획자들은 실제 온라인 모임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리허설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전체 모임의 포맷에 맞춰 축소판이더라도 진행할 내용을 다 한 번 온라인으로 구현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해보는 거랑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온라인 모임 진행이나 기술 지원을 안 해보신 분들이나 경험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몸풀기, 스트레칭: 카메라 활용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긴 모임에서, 식사하고 난 후, 긴 강의를 듣고 난 후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몸 풀기나 스트레칭 활동 많이 하시죠? 특히 오전 일찍 진행되는 모임이나 식사 후, 혹은 하루 종일 계속되는 행사의 경우는 몸 풀기나 스트레칭이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도 몸 풀기나 스트레칭을 진행할 수 있고 심지어 반드시 해야 하는 거 아세요? 온라인 행사의 경우 별로 움직임 없이 한 곳만 응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 풀기나 스트레칭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보세요. 카메라에서 조금 떨어져서 시범을 보이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목 운동이나 손목 운동, 안구 움직이기 등을 하는 것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분위기도 환기 시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기소개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참여자 수가 많거나 서로를 잘 모를 때, 참여형 워크숍일 때

아마 단체 별로 진행자 별로 선호하시는 자기소개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꼭 해야 하는 것이 자기소개인데요. 새로운 참여자들이 많다거나 할 때, 때에 따라서 자기소개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시간 관계 상 이것이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 패널들만 자기소개를 하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채팅 창에 소개하고 싶은 분들만 한다든지 하는데요. 전쟁없는세상에서는 온라인 자기소개 도구를 만들어서 아주 재미있게 서로를 알아 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래 링크의 슬라이드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일곱 가지 질문은 그대로 쓰셔도 좋고 아님 단체의 개성에 따라 모임의 성격에 따라 변형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임을 하기 전에 미리 참여자들에게 이 링크를 나눠주고 각자 소개를 하게하고 시간이 되면 본 행사에서 10분 정도를 할애해서 작성하지 못한 사람은 마저 작성을 하고 미처 읽어보지 못한 참여자들은 꼭 읽어볼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다.

[온라인 자기소개 워크시트 보기/다운받기](#)

예시

평화



질문	대답
1. 왼쪽의 사진/그림은 어떤 사진인가요? 왜 저걸로 골랐나요?	
2. 지금 활동 중이거나 과거에 활동했던 단체는?	
3. 딱 한가지 이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면 어떤 이슈에서 활동할 건가요?	
4. 팬데믹이 나에게 준 선물이 있다면?	
5. 스태프나 다른 참가자들이 자신에 꼭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혹은 배려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6.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가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7.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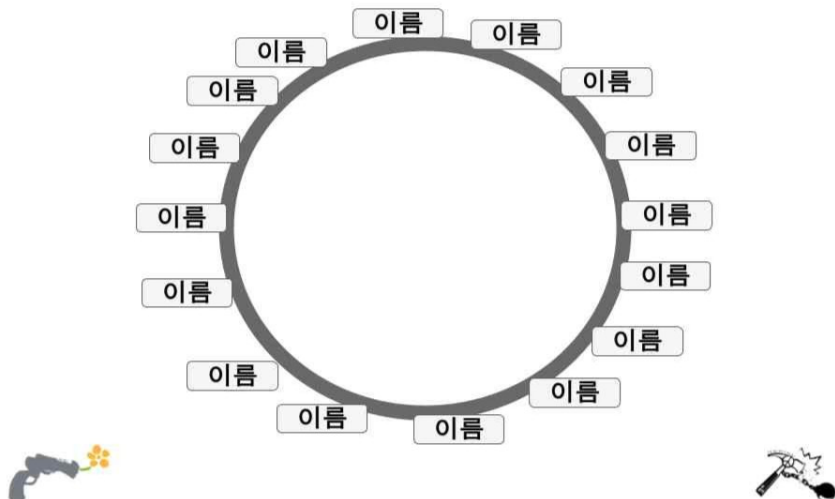
온라인 동심원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발언 순서를 추적해야 할 때, 참석자들을 한 눈에 보고 싶을 때

오프라인으로 회의/워크숍/트레이닝을 진행하면 동심원으로 동그랗게 모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위계가 없고 모두가 모두에게서 같은 거리에 있으며 서로를 잘 볼 수 있는 좋은 방식이죠.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서 아쉬웠는데요 아래 도구를 이용하면 미흡하지만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 도구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참석자들이 누구인지 한 눈에 보기 위한 간단한 목적에서부터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을 의결할 때 반드시 참석자 모두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그 순서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전쟁없는세상에서 회의에 관한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종종 사용하는 [어항게임](#)의 도구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동심원 워크시트 보기/다운받기](#)

동심원



패들렛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모임을 온라인으로 옮겼을 때, 소그룹활동에서

오프라인에서 회의/워크숍/트레이닝을 하실 때 포스트잇이나 메모지를 활용한 활동을 많이 하시지요? 패들렛은 온라인상에서 그 활동을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벽, 캔버스, 스트림, 셸프, 타임라인 등 메모지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다양한 서식이 있어 편리하고 링크를 만들어 공유하면 참여자 모두가 다 같이 한꺼번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나면 PDF 형식으로 내려 받을 수가 있어서 보관이나 공유도 용이합니다.

[패들렛 사이트 바로가기](#)



The screenshot displays the Padlet website interface. On the left is a navigation sidebar with the Padlet logo and a 'Log in' button. Below that are menu items: Home, Product, Personal, Business, and School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the headline 'It's a beautiful day. Make something beautiful.' followed by two buttons: 'Sign up for free' and 'Install windows app'. Below the buttons is a grid of eight colorful template thumbnails, each with a label: Wall, Canvas, Shelf, Stream, Timeline, Backchannel, Map, and Grid.

멘티미터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투표(주관식, 객관식 모두)를 활용하면 좋은 모임에서

멘티미터는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파워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실시간 투표, 워드클라우드, 퀴즈 등의 포맷을 활용하여 모두의 참여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이끌어내는 도구입니다. 음성이나 채팅창 등을 통한 상호작용에 비해 멘티미터를 활용할 경우 모두의 응답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멋지게 시각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한눈에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미가 있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응답을 익명으로 수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민감한 내용 등을 다룰 때도 참여자들이 부담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무료와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슬라이드 수, 퀴즈 수 등에 약간의 제한이 있고 접속을 위한 QR 코드는 이틀만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멘티미터 사이트 바로가기](#)

인권은 000이다!

Mentimeter



24

온라인 스펙트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참여자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 어떤 성향인지 확인하기 위해

스펙트럼은 전쟁없는세상 비폭력 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의 모든 트레이너들이 최애하는 활동 도구입니다. 한 눈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고 몸을 움직여 토론하기 때문에 줄음도 방지할 수 있지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몸을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이 쓰여진 명찰로 대신하게 됩니다. [온라인 스펙트럼 워크시트 보기/다운받기](#)



스펙트럼

주제

ex. 자기희생(단식, 분신 등)을 통해 어떤 주장을 한다.



한쪽 끝

ex. 동의한다

효과적이다

폭력적이다



다른 쪽 끝

ex. 동의하지 않는다

효과적이지 않다

비폭력적이다



아날로그: 종이와 펜으로 쓰거나 그리기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시각적 학습 채널을 사용하고 싶을 때

컴퓨터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회의/워크숍/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때론 아날로그 방식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인간적이며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표현해서 카메라를 통해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해보세요. 합의를 할 때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아예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워크숍 세션을 기획,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비폭력 직접행동 트레이닝을 할 때 자신이 경험해본 직접행동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그림을 먼저 그리도록 합니다. 특히 활동가들이 말이 아닌 그림을 그리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걸 처음에는 어색해 해도 곧 익숙해지고 즐기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가 아닌가는 정말 절대로 중요하지가 않답니다.



소그룹/짝지어 말하기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참여자 수가 많을 때,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참여형 워크숍에서

회의/워크숍/트레이닝을 진행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요즘 아주 딱딱 해져서 간편하게 소그룹이나 짝지어 얘기할 수 있는 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랜덤으로도, 지정으로도 할 수 있고 참여자들이 원하는 그룹에 직접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모든 사람에게 발언권이 돌아가기 어렵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멤버나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은 전체 그룹에서 말하는 것이 무척이나 용기와 순발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소그룹이나 짝지어 토론하는 것은 시간도 줄여주고 논의의 민주성을 높여주며 심지어 훨씬 좋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그룹/짝지어 말하기 세션은 토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활용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소그룹으로 진행하면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내용을 토론하면 좋을지 미리 질문을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그룹 토론의 진행자들을 미리 섭외해서 진행 방향 및 진행 시 유의할 점들에 관해 미리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꽤 편리한 소그룹 세션의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징검다리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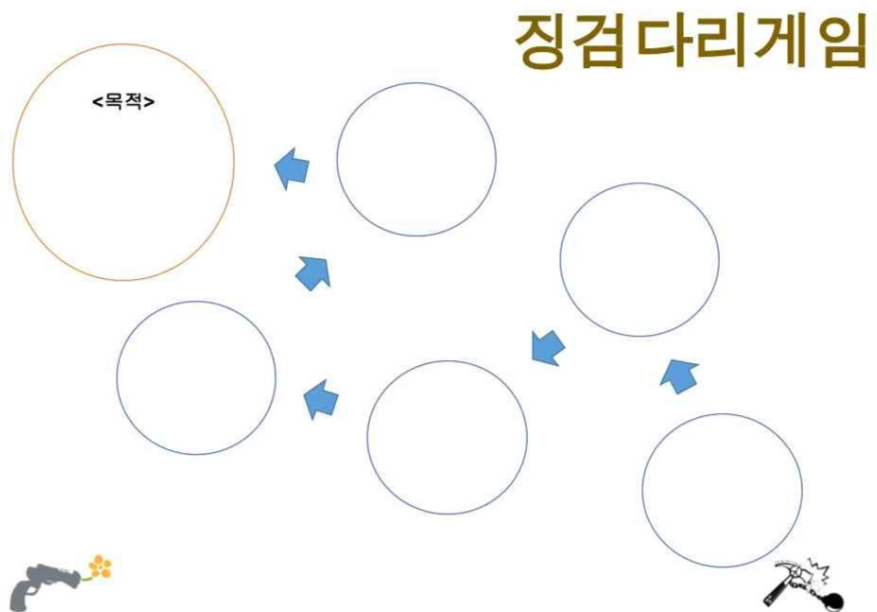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단체나 캠페인의 중, 장기 활동을 기획할 때,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고자 할 때

앞에서 회의/워크숍/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시했다면 이 게임은 [크리티컬패스 분석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트레이닝, 즉 단체나 캠페인의 중, 장기 활동을 기획할 때나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각자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화면 공유를 하면서 전체 참여자들과 공유 하셔도 좋고 출력해서 쓴 후 카메라를 통해 공유해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징검다리게임 워크시트 보기/다운받기](#)



온라인 연대의 스펙트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단체나 캠페인의 중, 장기 활동을 기획할 때, 조직화 대상을 확인하고자 할 때

연대의 스펙트럼도 망치에서 중, 단기 캠페인이나 특정 직접행동을 기획할 때 많이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캠페인이나 특정 행동을 기획하고 난 후 연대의 스펙트럼을 통해 그 행동의 대상을 설정하고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지요. 운동 및 캠페인의 지형을 확인하고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와 연대할지 가늠해보기 좋은 틀이예요. 연대의 스펙트럼 게임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온라인 연대의 스펙트럼 워크시트 보기/다운받기](#)

연대의 스펙트럼



나와 조직의 건강한 거리 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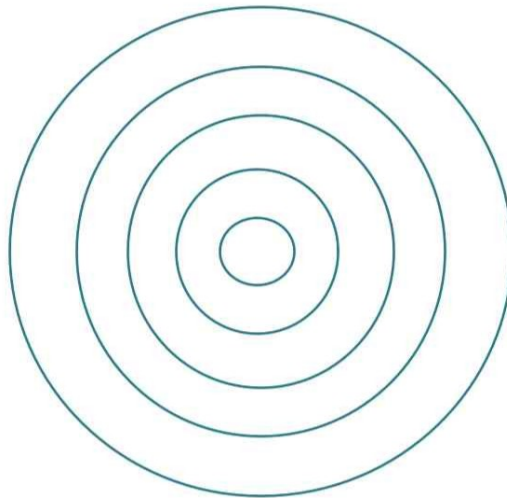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조직과 나의 관계에 대한 토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도구 역시 위 징검다리게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트레이닝을 위해 고안된 도구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바닥에 그림을 그려놓고 자신이 직접 움직이며 활동을 하는 것인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스펙트럼 게임처럼 명찰을 자신의 아바타라 생각하고 이동시키든가 아니면 아예 워크시트를 출력해서 점을 찍어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직과 나 워크시트 보기/다운받기](#)



조직과 나



온라인 칠판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오프라인에서 칠판이 유용한 순간을 온라인으로 옮겼을 때

줌이나 구글미트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화이트보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 등은 무료로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외에도 pdf, hwp, ppt, doc 등의 교재파일을 불러와 판서를 할 수 있는 아이캔노트, ppt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슬라이드를 이용하거나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그 위에 판서를 할 수 있는 아이캔스크린이 있습니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 정기적 업데이트도 되고 있어요. [“아이캔노트 공식 Cafe”](#)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펜태블릿이나 아이패드 같은 기기가 있다면 더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양하고 효과적인 부가기능들이 따라오는 것은 덤이지요!



OBS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에서

이 프로그램은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행사의 경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공유로 그냥 슬라이드 쉐어를 하는 것보다는 받은 강사의 얼굴이나 상반신이 나머지 반에는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다면 더욱 집중하기가 좋겠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구글링을 해보시면 사용법이 많이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하시고 강의용 PPT 슬라이드쇼 방식을 웹 형식으로 바꾸신 후 OBS에서 소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사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곳이 많으니 ‘파워포인트 강의 동영상 obs’ 정도로 검색해주세요~ [OBS사이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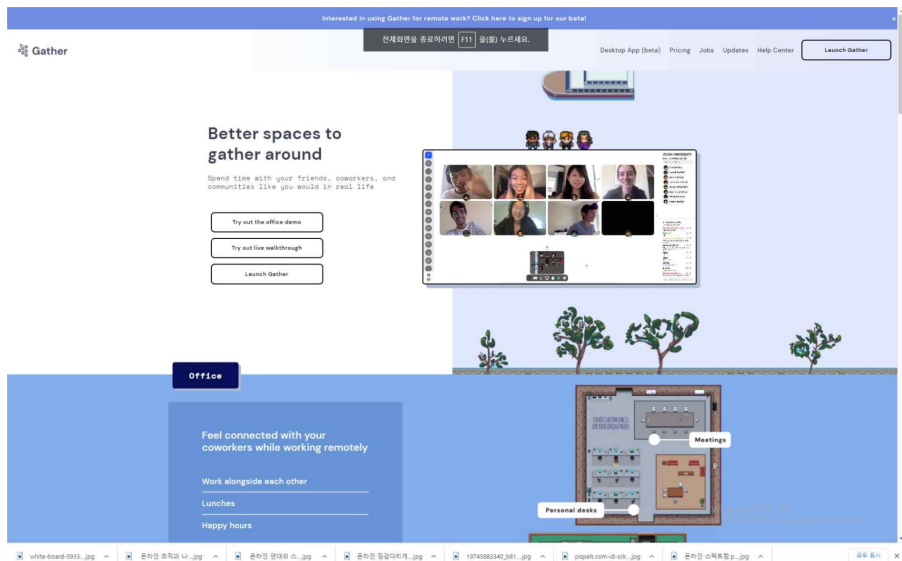


개더 타운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게임처럼 아기자기 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가상공간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싶을 때

누군가 소개하기를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아주 핫한 서비스 중 하나라고 하는군요. 저희는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플랫폼이지만 얼마 전 진보넷에서 바로 이 개더 타운을 이용해서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셨어요.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군요. 진보넷 덩야평님이 [사용법](#)을 자세히 소개해 주셨어요. 진보넷 유튜브 [따오기](#)에도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개더 타운 사이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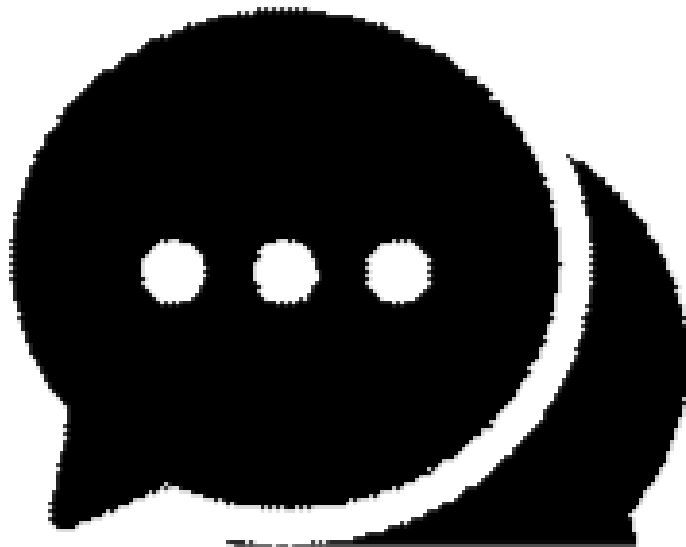
이밖에: 채팅창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자기소개, 질문, 코멘트 등을 채팅창을 활용하면 시간을 2배로 쓸 수 있다.

온라인 회의/워크숍/트레이닝은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온라인 행사는 오프라인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소개 등 주요 프로그램이 아닌 것들은 늘 후순위로 밀리게 되요. 이런 순서들은 채팅창을 통해 진행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될 때 질문을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올릴 수도 있고 참여자들끼리 DM을 보낼 수도 있고 관련 자료들을 즉각즉각 공유할 수도 있지요. 진행자들께서 참여자들과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주문을 틔우는 대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소개

④ 줌(ZOOM)

장점: 대규모로 회의/워크숍/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적합

줌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사용해본 온라인 모임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구글미트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비해 익숙하지요. 모든 미팅에는 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있고 모임 초대장은 줌 계정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쉽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의 줌이 있지만 전체 모임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되며 녹음하거나 저장할 수 없습니다.

④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MICROSOFT TEAMS)

장점: 줌에서 되는 건 거의 다 되면서 스케줄 공유 등 협업 관련 툴이 많음.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들과 호환이 잘 된다.

기업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사용법이 약간 복잡하다는 평이 있고 프로그램이 무거워서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에서는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료회원은 60분까지 회의가 가능합니다.

④ 구글미트 (GOOGLE MEET)

장점: 구글

무료 버전은 비디오를 한 시간으로 제한하며 한 번에 한 사람만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수많은 앱과의 직관적인 협업이 가능하고 로그인 된 모든 장치에서 자동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생각되어 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이 무료이므로 이 점이 장점이나 250명 참여자 제한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디스코드, Jitsi Meet 등의 다른 온라인 모임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3가지만 소개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은 모든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는 신념에 기초해 일상과 사회 구조에서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평화주의자/반군사주의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2003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의 날에 창립하여 18년 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일상과 사회 구조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사회부정의 중징병제도(병역거부캠페인)와 무기거래(무기감시캠페인) 두 이슈에 주목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폭력프로그램은 이 두 이슈 기반 활동에 대한 방법론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병역거부캠페인: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거부 상담 및 수감자 지원 등
- 무기감시캠페인: 한국산 무기 수출 모니터링, 방위산업전시회에 맞선 저항행동 조직, 한국 및 세계 군사비 감축을 위한 캠페인 등
- 비폭력프로그램: 비폭력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비폭력 트레이너 양성, 비폭력캠페인 자료 개발 등



비폭력 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

전쟁없는세상의 비폭력 트레이너 네트워크 ‘망치’는 사회단체 및 각종 소그룹에 비폭력 트레이닝과 워크숍, 캠페인 기술을 제공하는 트레이너들의 네트워크입니다. ‘망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도록 창의적인 비폭력의 사용 및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망치’는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좀 더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조직에서 권력관계의 문제로 민주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캠페인을 보다 창의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룹, 자괴감과 에너지가 모두 방전된 활동가들 등 현재 어떤 난관에 봉착한 그룹 및 개인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비대면 시대, 직접 해보고 깨달은 온라인 회의/워크숍/트레이닝 진행의 기술

발행일 2021년 3월 31일

발행처 전쟁없는세상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65 3층

전화 02-6401-0514

메일 peace@withoutwar.org

웹사이트 withoutwar.org

만든이 가람 구로 아침 열풍 오리

편집 오리

디자인 이용석



Copyright (c) 2013 by CCKOREA

Some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